

# 국힘, 비대위 전환 앞두고 ‘갑론을박’

### ‘관리형 vs 혁신형’ 논란 속 ‘단기형’ 주장도 이준석 지지자 “기생충을 햇볕에 짝 말려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앞두고 당 내부에서 비대위의 성격과 활동 기간, 인적 구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비대위 활동 기간은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개최 시점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만큼 비대위 전환과 동시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성격과 활동 기간 등은 9일 확정될 예정인 새 비대위원장의 주도로 당내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 주중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비대위의 성격과 관련, 조기 전대를 준비하는 과도기적 성격의 ‘관리형 비대위’와 적극적으로 당의 체질을 바꾸는 ‘혁신형 비대위’ 의견이 맞서고 있다.

5선의 조경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정말 엄중한 상황에서 비상적으로 꾸러지는 비대위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 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혁신형 비대위’를 선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가 언제까지 활동할 것인지를 놓고도 물밑에서 신경전이 벌어지는 분위기다. 비대위 활동 종료는 곧 전당대회 개최 시점을 결정 짓게 되고 이는 차기 당권 주자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내년 초에 전대를 개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비대위 활동 기간을 최소 ‘5개월 이상’으로 뒤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9월 말-10월 초에 국민과 당원이 선출할 정상적인 지도 체제를 출범하기 위해서는 ‘2개월 단기형’ 비대위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비대위 면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문제다. 9일 비대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비대위 규모는 위원장을 포함해 최대 15명까지 가능하지만 신속한 의사 결정 체계와 과거 비대위 구성 전례 등을 고려할 때 한 자릿수로 꾸러질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시절을 포함해 여덟 차례 비대위 체제를 경험했으며 이때 비대위 규모는 5-14명으로 다양했으나 9명 일 때가 세 번으로 가장 많았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로 구성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는 이날 여의도 한 카페에서 토론회를 열고 당이 비상대책 위 체제 전환을 통해 이 대표 ‘강제 해임’에 나선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튜브 생중계 채널에 동시접속자 1천여명이 모인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대표를 비호하려는 게 토론회 목적은 아니더라도, 당 윤리위원회의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

계와 당의 비대위 전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명숙(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씨는 “기생충 높이 하지 말고 기생충을 햇볕에 짝 말려야 한다. 당과 당원들은 이런 기생충들에게 밥을 제공하거나 속 주가 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이 대표 팬클럽이 아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대표가 아니라 이 대표 할아버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구하러 나간다”고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비대위 전환에 “사화(士禍)나 유신법처럼 비상 상황을 강조하고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몰아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수기자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토론회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등이 모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주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의도 클럽

### 이용빈, ‘리빙랩’ 고도화 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8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이른바 ‘리빙랩’을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촉진법’ 제정안(이하 사회문제해결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리빙랩’은 기존 과학기술 경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R&D·교육·지역·산업 혁신 등 다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에서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시민 참여를 결합한 ‘리빙랩’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추진위원회 신설, 관련 전담기관 지정,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 강화·평가협의회



운영, 전문인력 양성·국제협력 추진 등이 골자다.

이 의원은 “사회 구조와 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낯선 감염병, 기후위기, 공동체 없는 스마트시티, 데이터 소외, 사이버범죄 등 수많은 사회 난제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실험과 혁신적 접근이 사회적으로 더욱 독려돼야 한다”며 “제정법을 통해 사회적 난제에 대해 과학기술 기반의 문제해결 과정이 만들어지도록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 과학기술 정책과 공공R&D가 국민들로부터 아낌없는 지지를 받아 과학기술의 대중적 저변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 이재명, 대세론 쫓기 시도...박·강, 反明 결집전

#### 李, 로우키 행보로 실점 최소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초반부터 이재명 후보의 ‘원사이드’ 판세로 흐르면서 주자들의 전략도 눈에 띄게 차별화하고 있다.

압도적 선두 자리를 쫓던 이 후보는 실점을 최소화하며 일찌감치 대세론에 쫓겨 박는 ‘안전모드’를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친이재명계 의원은 “이미 70%가 넘는 권리당원 득표율을 쌓았다. 굳이 추가 득표를 노릴 필요가 있느냐”며 “통합 메시지를 좀 더 세계 가져가면서 준비된 당 대표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이재명 캠프’ 한민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는 박용진·강훈식 두 분의 젊고 능력 있는

새로운 리더들과 함께 유능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반면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의 벽을 실감한 박용진·강훈식 후보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마땅한 반전 카드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단 두 주자 모두 당내 ‘반(反)이재명’ 정서를 최대한 자극해 추격전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캐스팅보트’인 총총과 권리당원이 대거 포진한 호남 경선에서 대이변을 연출하면 극적 역전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선거인단 비중이 30%인 대의원 표심이 전당대회 마지막 날 공개되는 것도 이들이 ‘완주’ 의지를 불태우는 요인이 다. /연합뉴스

## 김희재 “‘나쁜 임대인’ 114명 혜택 여전”

### 보증사고 2천689건 대위변제액 5천636억 달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수시로 반환하지 않아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된 임대인 중 상당수가 여전히 임대사업자로서 각종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하지만 전세보증사고일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국회의원(여수·사신)이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한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 관리하는 ‘나쁜 임대인’ 186명 중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반면, 말소된 인원은 28명에 불과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



인에게 명백히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엔 확인된 114명은 보증사고 발생 후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말소 요건인 ‘법원 등의 판결’이 전제되지 않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총 2천689건으

로 대위변제액만 5천636억원에 달하지만 회수된 금액은 725억원으로 1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중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나쁜 임대인은 국가의 구상권 청구에도 연락을 회피하는 등 납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법적 미비로 인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며 “악의적 체납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수기자

### 尹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

#### 휴가 마치고 첫 출근길 문답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제가 국민들에게 해야 할 일은 국민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휴가 기간에 더욱 다지게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첫 여름휴가 후 업무에 공식 복귀한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문답에서 ‘휴가 복귀 소감을 말해 달라’는 물음에 “돌이켜 보니까 부족한 저를 국민들께서 불러내서, 어떻게든 호된 비판으로, 또 어떤 때는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국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다시 한번 갖게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자진사퇴’ 이야기도 나오고, 여론조사 지지율은 하락세다. 인적쇄신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인가라는 질문엔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동력이라는 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일이 시작되는데, 그런 문제들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www.e-dk.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